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의식의 역할*

이 원**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

이 연구는 시간의식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이것이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독립된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공존하고 있으므로 '경험'과 '기대'는 시간의식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인간은 현재에 인식되는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바로 이 예측된 미래, 즉 기대에 따라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시간의식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상징적 시간도구와 사회의 지배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시간관으로 확장된다.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의식의 역할은 TV의 매체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뉴스와 드라마 두 장르에서 분석되었다. 뉴스와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경험과 기대의 상호의미작용에 의해 작동하는 시청자들의 시간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재미, 흥미, 새로움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시간의식, TV 커뮤니케이션, 구성주의, 기대, 뉴스, 드라마

1. 시간의식과 TV 커뮤니케이션 간의 교차점을 찾아서

본 연구는 시간의식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TV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TV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이론은 다양하지만 인간의 시간의식에 관한 연구는 TV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

* 본 논문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wonkr@hanmail.net

는 데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용론에 따르면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호들의 결합체인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지는 환경 혹은 상황에 따라 구성되고 그 의미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식사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은 특정한 장소와 식사시간대라는 상황에서 발화될 것이고, 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 같이 하지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지나치며 나누는 단순한 인사말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주체간의 상호관계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쉽게 이해될 것이므로 TV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예로 설명하자면 TV 연출가와 작가는 프로그램 제작 시 비록 시청자를 직접 볼 수 없어도 각종 통계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들의 관심, 지식, 경험,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에코(Eco, 1985, p. 77)의 개념을 사용하자면 연출가와 작가는 제작 시 이미 ‘수용자 모델(récepteur-modèle)’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달자와 수용자의 의도는 메시지의 구성과 해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나 연출가가 제작할 때 수용자에게 재미 혹은 감동을 줄 것을 의도하고 수용자는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전달자의 의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뉴스의 수용자가 전달자의 의도를 모른다면 전달된 메시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TV는 또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업적 의도이다. 시청률은 주재원인 광고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장르적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수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TV는 방송과 동시에 즉시 소비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수용자를 매료시켜야 한다. 오늘날 위성, 케이블, DMB, IPTV와 같은 다양한 TV 매체가 등장하고 채널이 수십 개로 늘어나면서 채널 간 프로그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채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하루 24시간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날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방송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TV는 날마다 어떻게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일까? 에코(Eco, 1994)는 산업화의 결과로 대중매체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발생하면서 시리즈화된 문화 콘텐츠의 비약적 발전을 주목하였다. 시리즈물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무언가 다르거나 새롭고 독창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에코는 이것을 ‘반복’과 ‘혁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 시리즈 내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첫눈에는 다른 것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고 독창적이고 다른 것처럼 소개되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이유로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에코(Eco, 1994, p. 15)는 주장한다. TV 프로그램에서도 특징적 현상으로 보이는 반복과 혁신의 공존은 궁극적으로 TV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시간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시간의식은 사물이나 현상의 움직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반복과 혁신은 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의식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TV 프로그램은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장이며 이 상호작용은 의미의 교환에서 발견되어진다. 또한 TV 프로그램은 그 매체적 특성상 날마다 많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동시에 대량 소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혁신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중요한 결과물 중의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시간의식에 기초한 현상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여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의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시간의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할애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모델을 실질적으로 TV 프로그램의 분석에 활용하여 시간의식과 TV 커뮤니케이션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것이다.

2. 시간의식의 이론적 모델

1)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시간

시간의식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¹⁾. 왜냐하면 시간의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간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시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혹은 이론의 벽을 넘어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연구에서 지배적인 인식론적 관점은 현대 학문의 지배적인 ‘메타인식론’인 ‘사실·실증주의 인식론(épistémologies positivistes et réalistes)’에서 찾을 수 있다(Le Moigne, 1995). 이 인식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에 따르면 시간은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시간이란 무엇인가’가 타당한 질문이 될 것이다. 반면, 엘리야스(Elias, 1984/1997)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지적 활동과 동떨어진 별개의 인식론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인간의 지적활동을 통해 파악되는 지적 대상이며 결국 ‘인간의 시간’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메타인식론인 ‘구성주의 인식론(épistémologie constructiviste)’에 따른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어떻게 시간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사실·실증주의 인식론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의 존재 자체는 부인

1) 인식론(épistémologie)은 좁은 의미에서는 ‘과학 철학’ 혹은 ‘과학에 대한 이론’,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Barreau, 1990). 달리 표현하면, 인식론은 현실(réalité) 혹은 진실(vérité)이 아닌 지식(connaissance)의 성격과 타당성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적 혹은 인식론적 활동을 배제하고 파악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인식론적 가설은 바로 시간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실증주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다시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문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²⁾ 따라서 시간의 개념 역시 학문의 분화만큼 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등에서 우리는 쉽게 다양하면서도 호환되기 어려운 시간의 개념들을 접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사실·실증주의의 영향은 리케르(Ricoeur, 1983, p. 26)가 잘 요약하고 있는 기독교 사상가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의 고민을 통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 그는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 찰나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시간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난해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독립되고 객체화된 시간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사실·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들을 통해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 개념이 독립된 현실(reality)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결국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리케르(Ricoeur, 1985, p. 375)는 과거,

2) 열렬한 기독교 신도이자 사실·실증주의의 대표적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는 주체(인간)와 객체(사물 혹은 자연)를 철저히 구분하면서 객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없이 쪼개어서 분석한 후 과학적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소유자 혹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Bourg, 1997; Morin, 2005; Von Wright, 2000). 사실·실증주의 인식론자들은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분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르 모와뉴(Le Moigne, 1995)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은 학문의 분화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가 최초로 제시한 학문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3) 모랭(Morin, 1991, p. 174)은 사실·실증주의의 방법론의 문제점의 하나로 ‘형식논리’를

현재, 미래라는 개념적 카테고리를 각각 독립된 현실로 파악하는 관점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과거로 향한 우리의 해석 간에 작동하는 상호의미작용의 복잡한 게임”을 놓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결국 언어적 표현과 개념을 통한 객체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간을 인간의 경험의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주체로부터 독립되고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인간의 지식은 인간과 사물, 인간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시간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경험과 지적활동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실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존재론적 탐구보다는 시간이 인간의식의 단계에서 어떤 고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정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 이것이 시간의식의 이론적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인식론적 출발점이자 방법론적

<표 1> 시간 연구에 있어서 메타인식론적 관점의 차이

	사실실증주의	구성주의
연구대상	독립적, 객관적 시간의 존재(시간)	인간의 인지적 경험의 산물(시간의식)
문제의식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념	이론 혹은 학문에 따라 독립된 시간 개념 도출. 객체화된 과거, 현재, 미래 개념 사용.	시간의 계보적 개념 및 변천과정 도출. 시간의식을 설명하는 경험과 기대 개념 사용.
논리	형식논리	상호작용, 순환적 논리

지적하고 있다. 형식 논리는 ‘동일성의 원칙’(A는 A이다), ‘비모순의 원칙’(A는 동시에 B와 -B가 될 수 없다), ‘삼자배제의 원칙’(A는 B이거나 -B이다)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니고 있다(Morin, 1991).

- 4)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성주의 인식론은 주로 삐아제(Piaget, 1967), 르 모와뉴(Le Moigne, 1995), 모랭(Morin, 2005), 본 글라스펠드(Von Glasersfeld, 1981/1988) 등 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나 이것을 시간연구에 적용한 것은 적용한 것은 본 연구만의 새로운 시도이다.

좌표이다.

2) 시간의식과 시간지평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시간의식의 형성과정은 움직임의 지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Torres, 2004, p. 17). 물론 움직임 자체가 시간이라는 말은 아니며 단지 인간의 시간의식의 형성에 근본적인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시간의식의 탄생과 경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삿피아제에 의해 실시되었다(Piaget, 1981). 삿피아제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인간의 선형적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형성된 인지적·지적 대상임을 밝히면서 구성주의적 시간이론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⁶⁾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 수많은 움직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복잡한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동물과는 다른 인간 고유의 시간의식이 생성된다. 동물의 시간은 즉각적으로 연속성과 기간을 인지하는 ‘본능적 시간(temps intuitif)’에 머무는 반면 인간의 시간은 동시성, 연속성, 기간의 적합한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조작적 시간(temps opératoire)’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Piaget, 1981). 삿피아제는 여러 연령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높이가 다른 두 물병의 물을 붓는 실험을 하는데, 어린이의 시간의식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물의 변화에 따라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 한 병의 움직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에 이른 어린이가 한 물병은 물을 따름으로 인해 비게 되고 다른 물병은

5) 르르와 구란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은 순수하게 기술적 혹은 과학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하였다(Leroi-Gourhan, 1965). 이처럼 시간과 움직임과의 밀접한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6) 인간은 생체리듬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내적으로 혹은 선형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나 이 시간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직관적 시간’에 가까우며 인간의 고유한 시간의식과는 구분된다.

물을 받기 때문에 치는 상태를 동시에 파악하기에 이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연속적 움직임이 발생했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정신적 활동을 통해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인간의 시간의식은 움직임 혹은 공간적 연속성을 파악하는 지각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달리 설명하면 직관적 시간은 사물의 위치나 상태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인간의 고유한 시간의식은 여러 움직임의 논리적 혹은 인과적 관계를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된다.⁷⁾

뻘아제의 실험은 시간의식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⁸⁾ 프레스(Fraisse, 1957)는 이러한 인간의 시간의식을 ‘시간지평(horizon temporel)’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시간지평은 인간이 기억의 발달과 상징체계를 통해 지난 간 경험을 보전하고 그것을 통해 사물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뻘아제가 말하는 ‘조작적’ 시간의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인간의 시간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지평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기억에 의해 보전되고 축적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자극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 즉 현재의 자극을 기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기호에서 추출되는 의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 현재에 필요한 행동을

7) 뻘아제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의 ‘직접적 직관(intuition directe)’이 ‘직관적’ 시간과 유사하다고 보았다(Piaget, 1981). 하지만 뻘아제는 어린이의 시간의식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조작적’ 시간의 단계에 와서야 고차원적인 인간의 고유한 시간의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의식에서 파악되는 연속적인 것(durée)으로 간주하고 있다(Bergson, 1968, pp. 41~42). 이것은 ‘선형적 시간(temps a priori)’을 말하며 이것은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뻘아제의 시간개념과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슬라르는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을 비판하면서 시간을 순간들의 결합으로 보고 시간의 단절, 새로운 시작을 중요한 현상으로 간주하였다(Bachelard, 1992).

8)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뽕티는 시간은 “나와 사물들의 관계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한다(Merleau-Ponty, 1945, p. 471). 그는 시간의 연속성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는 ‘인간-관찰자(homme-observateur)’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 점에서 그는 뻘아제와 같은 출발선에서 시간을 고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발시킨다. 달리 말하면 시간지평은 현재의 자극에 따라 미래에 만족을 줄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미래에 위험을 가져올 행동을 피하게 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행동은 미래를 예측하도록 작동하는 시간지평에 의해 조정되므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지평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재구성과 미래의 예측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작용에 치중하고 있어 시간의식에서 ‘경험적 현재(*présent vécu*)’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심리적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 시간지평을 경험적 현재와 독립된 심리적 병리 현상의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지평은 마치 만족 혹은 안전을 찾아 지각된 현재를 초월하기 위한 심리적 행위로 축소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시간 심리학은 시간지평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이나 문제점에 주력하므로 경험적 현재와 시간지평의 분리된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듯하다.

3) 경험과 기대의 상호의미작용

시간의 문제를 인간의 시간의식 문제로 치환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는 독립된 현실을 지칭하는 개념적 카테고리라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의식에서 과거와 미래는 경험적 현재 속에서 기억과 예측의 형태로 ‘현재화(*actualisation*)’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시간의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 논리에 따른 사고를 탈피해서 경험적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코셀렉(*Koselleck*, 1979/1990)이 제시한 “경험장(*champ d'expérience*)”과 “기대지평(*horizon d'attente*)”이라는 두 개념은 바로 이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경험장에서 ‘경험’은 과거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다시 기억될 수 있는 “현재의 과거(*présent actuel*)”를 말한다(*Koselleck*, 1979/1990, p. 311). 다시 말하면 경험은 “전 세대 혹은 현 제도에 의해 전송되거나, 사적인 경험” 또는 “습득되어 아비투스(*habitus*)가 되어버린 것”을 말한다(*Ricoeur*, 1985, p. 376). 이 개념은

시간을 인간의 경험적 차원에서 다루면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을 지우고 있다. 한편 ‘장’은 “다양한 여정을 통한 도달과 축적된 과거가 단순한 연대기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겹층 구조 속에 모이고 계층화되는 가능성”을 말하기 위한 개념이다(Ricoeur, 1985, p. 376). ‘장’은 바로 시간적 개념에 공간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경험적 현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아닌 다양한 층의 두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형식 논리가 아닌 인간의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는 이처럼 찰나의 순간이 아닌 하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대지평에서 ‘기대’는 “희망과 근심, 바램과 기원, 걱정, 이성적 계산, 호기심, 간단히 말하면 미래를 겨냥한 모든 사적인 혹은 집단적인 표출을 포함하기 위한”,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된다(Ricoeur, 1985, p. 376).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대는 현재에 존재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는 “현재화된 미래(futur actualisé)”를 말한다(Koselleck, 1979/1990, p. 311). ‘지평’이라는 개념은 “확산과 기대에 결합된 초월적 힘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Ricoeur, 1985, p. 376).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경험과 기대는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니라 서로 긴장감 속에 상호의미작용을 하며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긴장감은 ‘장’이 지니는 집합의 의미와 ‘지평’이 지니는 확산의 의미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긴장감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조건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경험의 축적과 회상은 기대를 통해 현재화되며 기대 역시 경험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과 기대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경험장과 기대지평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카테고리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시간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며 이것이 감정과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험을 ‘현재의 과거’로 정의하는 것은 지각하는 현재 속에 과거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Koselleck, 1979/1990, p. 312). 또한 이 경험의 장은 지나간 경험의 다양한 층위가 동시에 모여 조직되는 공간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주지할 것은 경험장은 의미의 영역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경험은 사라지고 의미를 담는 경험만이 기억에 남거나 상징체계를 통해 외재화되어 존속된다. 경험장에 남게 되는 과거의 경험은 결국 선별되고 조직된다. 한편 경험장에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조직된 경험들이 항상 그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의 생산은 항상 상황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과거의 경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에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경험의 의미들이 부상한다는 뜻이다. 경험은 이처럼 의미를 생성하고 바로 이 의미가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잘 계산된 진단이나 예측이든 혹은 단순한 희망이든 바로 이 기대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 조정된다. 물론 경험장으로부터 추측된 미래가 반드시 실제로 다가올 미래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측된 미래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현재에 인식되는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바로 이 예측된 미래에 따라서 현재의 행동을 정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이 인간의 현재 행동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엄밀하지 않다. 인간은 기억력의 힘으로 항상 기대지평을 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특정한 기대지평이 등장하게 된다. 경험과 기대 사이에는 이처럼 항상 긴장과 견제 그리고 조정이 일어나며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행동과 감정으로 발현된다.⁹⁾

인간은 시간의식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개개인은 날마다 수많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수많은 시간지평이 탄생하고 사라진다. 시간의식은 우리가 날마다 행동하고 느끼는 수많은 일에 관여한다. 목이 말라

9) 경험과 기대의 상호의미작용은 개인의 시간의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천과정과 역사의식의 관계까지 설명가능하게 한다. 역사의식은 경험과 기대 사이의 긴장에서 형성된다. 이 역사의식은 의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결국 역사적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의 변화에 작용한다(Koselleck, 1979/1990). 이 경우 개인적 시간의식이 집단적 시간의식으로 확장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을 찾아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서 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는 행위까지 시간의식은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작동한다. 감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으로 말기암을 판정받을 때 현재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 현재의 매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즉, 멀지 않아 다가올 최악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의 그의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것이다.¹⁰⁾ 그리고 그의 현재의 행위들은 이렇게 결정된 최악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선택될 것이다.

4) 시간의식의 사회적 확장

(1) 상징적 도구를 통한 시간의식의 사회적 확장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순간순간에 좌우되지 않고 시간의식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폭의 시간적 프레임 속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현재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한 달, 일 년 혹은 십 년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불길한 일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하루 뒤에 결과를 보든 일 년 뒤에 결과를 보든 항상 의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예측되지 않는 미래는 인간에게 행동의 지향점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의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위해 과거의 경험을 축적하고 미래를 예측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의식은 사회적 시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의식이 형성되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10) 니체(Nietzsche, 1874/1998)가 들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부러워한 것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시간의식에 의해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소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에 좌우되지 않고 현재의 매순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안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통제만이 현재에 적합한 행동을 선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고대사회를 보면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행위를 조정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 시간도구를 발명했음을 알 수 있다. 상징적 시간도구는 자연현상에서 경험적으로 파악된 반복적 현상을 재현 혹은 기록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가능한 미래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상징적 시간도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시기에 따라 적합한 행위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상징적 시간도구는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시간의식을 사회적 시간의식으로 확장시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탈리(Attali, 1982, p. 32)가 “날짜를 매기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무지를 줄이는 일”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도구를 만드는 방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의 관계를 관찰하여 그중의 하나를 다른 것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시대나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이점은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물리적 현상을 선택할 것이며 어떠한 기술과 표현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Matricon, Roumette, 1991). 고대 농경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해와 달의 반복적 운동이다. 한편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예외적인 자연현상들은 고대인들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사회는 점점 팽창하고 그 속에서 역할이 세분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는 자연의 관찰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것의 변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와 달의 대체물로서의 상징적 시간 도구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 도구는 바로 해시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시계는 낮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정확성이 떨어지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시계는 이러한 해시계의 단점을 최소화시

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물시계는 이러한 해시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명된 초기 인류의 시간 도구이다. 물시계의 발명으로 인간은 원하는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다양한 물시계는 시간 측정이 인간의 환경적응과 사회질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대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의 특정한 시간, 연중 특정한 날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시간 도구들은 그러한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종교적 질서에 기여하였다. 중세에 교회에 설치된 종루는 종교적 시간을 알림으로써 시간적 사회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력은 인류의 시간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달력은 단순하게 달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 차원을 넘어서 자연의 리듬에 대한 ‘성스러운’ 해석이다(Attali, 1982, p. 35). 달력은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보여주어 실질적으로 농경에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모든 달력은 종교적 성격의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다른 시간 도구와 마찬가지로 달력은 종교적·정치적 권력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왔다.¹¹⁾

서양의 중세기 후반기를 지나면서 시간 도구들은 조금씩 종교적 색채를 벗고 교역의 교차로에서 발전한 도시에서 점점 정치적 권력의 사회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다시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을 통제하고 측정하는 경제적 목적에 활용되는 도구로 그 의미가 전환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잠시 물리학의 발전에 의한 시간의 새로운 개념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세기에 과학은 갈릴레이의 지동설과 함께 세계관을 바꾸었고 이러한 과학적 혁명은 시간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영역을 개척한 갈릴레이는 당시 사용되던 시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하

11) 고대사회에서 달력은 성스러운 곳에 보관되어 성직자나 통치자들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Attali, 1982).

기 위해 추진자에 의해 작동되는 시계를 구상하였다. 이 시계는 동시대의 휘젠(Huygens)이라는 저명한 과학자에 의해 실제로 발명되기에 이른다 (Matricon, Roumette, 1991). 이후 용수철을 사용한 시계가 발명되었고 더욱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작고 가벼운 손목시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추와 용수철에 의해 발명된 시계는 복잡한 과학이 직접 기술에 접목된 사례로 간주된다 (Matricon, Roumette, 1991).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간 측정에서 과학의 발전에 의한 기술적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갈릴레이와 같은 과학자가 시간 측정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물의 움직임의 속도와 지속성을 측정할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Elias, 1984/1997). 결과적으로 과학적 실험을 위해 시간 측정 도구를 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종전의 시간 도구는 인간 활동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 활용되어왔는데 물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때부터 시간은 사회적 혹은 자연적 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규칙적이고 세분화된 정확한 움직임에 의해 묘사되기 시작한다. 엘리아스(Elias, 1984/1997, p. 129)는 물리적 시간 개념의 탄생과 함께 시간은 정치·종교·사회적 의미를 벗고 단순의 측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물론 기존의 다양한 시간 개념들이 이후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나 이 시기부터 양적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배적인 시간개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더욱 정확해지고 이동성을 갖춘 시계는 점점 상업 활동에서 활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18세기에 식민지 쟁탈 경쟁과 함께 국제 무역의 발전으로 서구에서 시계산업은 큰 성장기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산업혁명과 함께 시간 도구들은 노동 시간과 그 가치의 측정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시계 산업의 발전으로 귀족과 부자의 소유물이던 시계가 점점 일반인에게도 접근 가능한 소비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표적 시간 상징물인 시계는 바로 이러한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현대사회의 고유한 시간 개념을 대변하고 있다.

(2) 시간의식에서 시간관으로

시간의식의 사회적 확장은 단순히 상징적 시간도구의 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버거와 러크만(Berger & Luckmann, 1966/1996)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현실에 대한 지식이 달라짐을 지적하면서 현실의 사회적 구성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지배를 받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정체성은 사회적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적 형태 속에서 형성되며, 자아의 형성은 안정을 지향하는데 사회적 질서는 이 안정의 극단적인 형태가 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적 유형화(typification réciproque)’를 통해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상호적 유형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같은 상황 하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통된 습관을 형성하면서 시작된다. 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제도(institution)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후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를 마련한다. 버거와 러크만(Berger & Luckmann, 1966/1996)은 이 정당화 방식으로 ‘경험의 언어적 객관화’, ‘격언과 같은 이론적 명제’, ‘전문적 이론의 개발’, ‘상징적 세계의 구성’ 등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가장 고차원적인 정당화 방식을 바로 상징적 세계의 구성으로 보았다. 상징적 세계의 구성은 결국 인간의 일상적 경험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여 현실에서 사회적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상징적 세계에서 시간의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 버거와 러크만(Berger & Luckmann, 1966/1996)은 상징적 세계가 특수한 개념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화, 종교, 철학, 과학을 제시하였다. 결국 모든 사회는 질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현 세상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세계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모든 사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은 반드시 시간관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모든 세계관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자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죽음’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죽음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죽음을 설명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로 환원 혹은 승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Berger, Luckmann, 1966/1996, p. 54).

모든 고대사회는 고유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신화는 인간이 태초에

어떻게 탄생했으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다(Eliade, 1963/1988, pp. 16~17). 신화에서 말하는 세계를 그 누구도 입증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인간과 사회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고차원적인 세계관이 필요하고 고대사회에서는 신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대 농경사회의 신화를 보면 주로 순환적 시간관을 담고 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이 이러한 순환적 시간관에 의해 설명됨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면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신화는 직선적 시간관을 담고 있다.¹²⁾ 놀라운 사실은 유대교의 직선적 시간관은 기독교에서 전승되고 로마제국이 만든 길을 따라 유럽을 지배하는 시간관이 되고 마침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결합되어 진보주의 역사관의 토대가 되었다(Von Wright, 2000). 진보주의 역사관이 동양에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최근의 일이다.

종합하면 인간의 시간은 시간의식의 탄생에서 출발하여 크게 두 갈래로 사회적 확산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갈래로 상징적 시간 도구의 발명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시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상징적 시간 도구는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의 일정한 규칙을 제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의 질서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 상징적 시간 도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시간 개념이 등장하였다. 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 시계가 내포하고 있는 시간 개념 혹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중세 혹은 고대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번째 갈래에서는 또 다른 시간의식의 사회적 확장으로 여러 시간관이 탄생하고

12) 유대교 신화의 직선적 시간관은 당시 유대민족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신화학자들은 보고 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문화를 형성하던 민족들의 신화에서는 농경과 밀접한 순환적 시간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면 유대인들은 영토를 잃고 떠돌아다니며 많은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민족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대교의 선지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예언하는 직선적 시간관을 도입했다는 이론이 있다(Eliade, 1969/1989).

변천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시간관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시간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미래, 특히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기대지평이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불안을 최소화시키며 사회의 질서유지에 기여한다.

3. TV 프로그램의 구성과 수용에서 시간의식의 역할

이제 앞에서 살펴본 시간의식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시간의식이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이 이론적 모델은 모든 TV 프로그램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드라마와 뉴스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허구적인 세계와 사실적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두 장르는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수용자의 시간의식을 통해 각각의 장르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획득하고 있음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 분석은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의식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유한 방법론적 특성을 지닌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출가와 작가 그리고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반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반복적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이 사회문화적 지식을 공유하는 영역을 구성하여 메시지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기대를 야기함으로써 혁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대의 내용에 따라 혁신성이 인지되는데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의도하는 것이 달라지므로 장르별 혁신 방식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뉴스의 시간적 구성과 시간의식

뉴스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소비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는 새로움, 예외성, 흥미

로움 등 소비를 자극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로움은 경험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건(événement)’이 새롭거나 예외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예상되는 미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반복보다는 혁신에 가깝다. 사건은 그 존재 자체에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경험)과 반복될 것(기대)에 비추어 그 새로움과 예외성을 인정받는다.

사건이 무질서에 가까운 것이라면 뉴스의 정보는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존재한다고 부뉴(Bougnoux, 2001)는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information)의 일차적 개념은 조직되지 않은 데이터를 표현의 형식들 속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안다는 것은 제거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보의 ‘폐쇄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보의 폐쇄성은 화용론에서 주장하는 정보의 ‘적합성(pertine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Reboul, Moeschler, 1998). 정보의 적합성은 전달자와 수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삶에 비추어 이해가 가능하거나 수용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형태를 말한다. 특히 공동체는 정보의 선별, 통제, 제제, 등에 관여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정보가 기존의 질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정보는 세상에 대해 개방성을 지니고 있고 세상의 변화를 다룬다. 만약 뉴스 정보의 개방성, 새로움, 혁신성 등이 없으면 이 정보는 존재 이유가 없으며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사건을 다루는 뉴스의 정보와 시간의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사건은 간단히 정의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Ricoeur, 1991).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건은 아니다.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사건은 갑자기 기존의 질서를 깨고 등장하는 새로운 현상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건은 개인 혹은 사회의 기대에서 예상되는 질서를 깨는 새롭고도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제해야 한다. 사건을 통제하는 방법은 물리적 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récit)’ 속에 시간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 가능한 상태로 전환

하는 방법도 있다(Ricoeur, 1991). 그런데 사건을 결국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의 발견을 넘어서 의미의 창조로 이어진다고 리케르는 말한다(Ricoeur, 1991). 그는 사건을 언어의 서사적 구조에 담음으로써 사건은 진정한 사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한다(Ricoeur, 1991, p. 17).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건을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적 테두리에 담는 것이다. 서사적 방식에 의해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테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속에서 사건에 관계된 다양한 행위들과 일들이 인과적 구조 속에 재구성된다. 특히 시간적 테두리의 끝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끝으로부터 이야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끝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행위와 일들이 재구성되면서 우연은 필연으로 변하고 사건을 결국 설명된다. 하나의 우발적인 현상으로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의 법칙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는 사건의 의미제공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사건을 무질서의 세계에서 이해가능한 질서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개인적 혹은 집단적 경험장에 편입시킨다.

다양한 사건을 재현하는 TV의 뉴스 역시 하나의 이야기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뉴스의 정보는 집단적 기대를 뒤집는 무질서의 사건을 서사적 구조로 묘사하고 설명하여 이해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경험의 장에 편입시키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시간의식과 연계하여 뉴스에 나타난 서사적 기술과 역사서에 나타난 서사적 기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뉴스는 시사적이고 매우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사서의 서사적 기법과 차이가 난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뉴스는 즉시 대량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는 사건을 설명할 때 더 흥미롭고 새롭게 만드는 장치를 사용한다. 심지어 이야기 구성방법을 활용하여 사건화(événementialisation)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건화 방식은 바로 수용자의 시간의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부터, 그러나 비공개로 빠드릭 딜(Patrick Dils)은 1986년에 일어난 두 명의 어린이 살해사건에 대해서 마른느(Mame)의 청소년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

았다. 이 두 살인에 대해 그는 결백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단서에 기인한 첫 번째 재판이다. 연쇄살인범 프랑시스 올므(Francis Heaulme)가 사건 범죄 현장에 있었다. 오늘 열린 재판은 6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예외적인 소송. 사법연감에 극히 드문 재심. 스스로 결백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감옥에서 15년 가까이 보낸 한 남자의 두 번째 재판.”

<France 2, 2001년 6월 20일 20시 뉴스 방송 내용 중에서>

프랑스 TV 뉴스에서 이 재판 사건은 여러 날에 걸쳐 중요하게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재판 중에서 TV 방송의 주요 법정 보도가 될 만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보도의 내적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우연적 관계 설정이 사건의 새로움과 예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미성년자(범행 발생 시점 빠뜨리 달은 미성년자)와 두 아이의 살인사건
- 두 번째 재판(2001년)과 15년의 감옥생활(시간적 거리가 매우 김)
-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연쇄살인범이 동시에 존재

우연적 관계에 의한 보도의 구성은 서로 논리적 거리가 먼 두 가지 항목을 나열함으로써 예외성, 새로움,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Barthes, 1964). 바르트(Barthes, 1964)는 대중 매체의 정보에서 우연적 구조와 인과적 구조를 분석하여 어떻게 정보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사건화’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인과적 구조의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자신의 애인을 칼로 찔렀는데 애정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정치적 견해가 틀렸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는 애인 간의 범죄행위의 이유가 정치적 견해차이라는 비상식적인 인과성으로 시청자를 놀라게 한다. “한 여자가 사장의 아들을 유괴했는데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도 마찬가지다. 바르트(Barthes, 1964)는 신문기사나 뉴스 보도가 어떻게 새로움, 예외성을 창출하는지를 텍스트의 구조 속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좀 더 고찰해보면 기사나 보도에서 놀라움은 근본적으로 수용자의 기대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이다. 수용자의 기대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의 질서로 향해 있다. 그리고 정보의 생산자는 사회문화적 지식을 통해 상식적인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있고 수용자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수용자의 질서에 대한 예측 혹은 기대를 전복시킴으로써 TV 정보는 놀라움과 새로움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지해야할 것은 경험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대를 생산하려면 우선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수용자는 이미 사회문화적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이야기하는 기대의 내용에 따라 사건이 선별되고 재구성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뉴스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경험과 기대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시간의식은 단순히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메시지 구성의 고려요인이라는 차원을 넘어 TV가 의도하는 또 다른 목적, 즉 신선함, 새로움, 놀라움, 등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시간의식과 드라마의 재미

TV 드라마 장르에서 시간의식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에서 제작된 시리즈 <콜롬보(Columbo)>를 분석해보자. 이 시리즈는 1967년에 처음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 드라마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영상물이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범죄 테마 혹은 형사소설 장르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을 목적으로 한 드라마 시리즈라는 고유한 장르적 특성도 동시에 지닌다. 반복과 혁신이 이미 이 프로그램 장르적 특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서사적 구조는 매 에피소드마다 거의 동일하다. 범죄는 항상 초기에 일어난다. 범인은 항상 교묘하게 범행현장을 조작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다. LA 경찰청 형사 콜롬보는 범행 현장을 조사하고 용의자를 찾아가 질문을 던진다. 그 과정에서 콜롬보는 조금씩 범인의 정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범인의 범행을 증명하는데,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그 만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 드라마에서 수용자의 관심은 범인의 발견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범인은 항상 매 에피소드의 첫 부분에 연출된 범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주된 관심은 바로 형사 콜롬보가 범인을 찾아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수용자의 역할은 콜롬보의 수사 기술을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와 연출자가 매번 어떻게 반복인 구조 속에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연출해내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Eco, 1994, p. 19).

이 시리즈에서 반복의 형태는 장르와 서사적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매 에피소드마다 반복되는 것들을 쉽게 상기할 수 있다. 입가에 물린 시가, 낡은 비옷, 조그만 메모지, 낡은 자가용(Peugeot 403 cabriolet)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콜롬보의 습관적 행동 등이 그것들이다. 콜롬보는 매 에피소드에서 거의 예외 없이 용의자와 함께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소한 얘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들로 모두 콜롬보의 외모만을 보고 경시한다. 이처럼 콜롬보의 이미지는 모든 에피소드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와 같은 TV 드라마 시리즈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연출된 반복성은 시청자들이 쉽게 그 인물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시청을 습관화하는 데 기여한다.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적인 요소들은 연출가, 작가, 그리고 수용자가 모두 공유하는 경험장을 형성하게 된다. 동시에 반복적인 요소들은 바로 작가에 있어서는 혁신의 원천이요, 시청자들에게는 기대의 원천이 된다.

콜롬보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콜롬보 부인의 장례식(L'enterrement de Mme. Columbo, 1990)’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에피소드는 기존의 서사구조와 달리 범행 장면이 아닌 콜롬보 부인의 장례식을 첫 장면으로 해서 시작된다. 콜롬보 부인의 장례식은 처음부터 콜롬보 마니아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콜롬보는 항상 아내에 대해 말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비록 그녀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친근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의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이 에피소드는

처음부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첫 장면에서 이미 작가와 연출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숨어 있다. 시청자의 시청경험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 장면이 지나간 후 이 에피소드는 범죄 행위,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원래의 서사적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한 남자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부인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체포를 도운 장본인을 살해한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인은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이 살인사건을 맡게 된 콜롬보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한다. 콜롬보는 바로 그녀의 남편을 체포한 형사였던 것이다. 그녀는 콜롬보의 부인을 독살하기 위해 독이 든 잼을 선물한다. 이것을 미리 눈치 챈 콜롬보는 역이용하여 이 잼을 먹고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으로 위장한다. 그것을 모르고 장례식에 참석한 그 여인은 장례식 후 실의에 빠진 콜롬보를 동반하여 그의 집에 간다. 콜롬보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범인에게 진열된 액자 하나를 들고 사진 속의 사람이 바로 사망한 자신의 부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콜롬보는 간단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녀가 준 독이 든 잼을 빵에 발라 먹는다. 그리고 갑자기 콜롬보는 식은땀을 흘리고 힘들어 한다. 그 순간 마침내 범인은 죽어가는(실제로는 죽은 채하는) 콜롬보에게 범행 동기와 범행을 실토한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콜롬보는 다시 회생하고, 숨어서 증언을 녹취한 형사에게 그녀를 인도한다. 에피소드가 여기서 끝난다면 콜롬보의 마니아들에게는 다소 싱거웠을 것이다. 사실 범인이 준 잼을 콜롬보가 자신의 부인에게 주었다는 부분에서 수용자들은 이미 다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콜롬보가 잼을 먹고 죽어가는 연기를 할 때 이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연극이라는 것도 쉽게 눈치챈 것이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끝나기 몇 분 전에 나온다. 형사 콜롬보는 범인을 경관에게 인도한 후 집 안에 남아 부인의 사진 액자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안녕, 나야, 잘 있어? 목소리가 이상하네. 잠은 충분히 잤어? …… 무슨 상관이야. 그 드라마를 녹화하면 되지. 아주 간단해. 어쨌든 (드라마는) 항상 똑같은 건데. 그러니 자는 편이 나아. …… 처제에게 내가 사진을 내일 돌려준다고 말해줘. 너하고 나 사진사 한번 만나러 가자. 우리 최근에 둘이서 찍은 거 하나도 없네. 어쨌든 한심한 일이야. 뭐라고, 사진에서 못생기게 나온다고? 절대 아니야. 좀 있다가 모두 다시 이야기하자. 아니, 아니 늦지 않을게. 나도 사랑해.”

그리고 화면은 멈추고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 전화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매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실제로는 시청자를 조롱하고 있다. 콜롬보의 말에서 시청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원통해할 것이다. 콜롬보 시리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부인을 사진으로나마 처음으로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녀의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콜롬보는 부인에게 드라마는 항상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청자들을 다시 한 번 조롱한다. 이 에피소드는 전작들과는 조금 달리, 단순히 범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보다 콜롬보라는 시리즈를 오랫동안 시청해온 시청자들의 시간의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험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기대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콜롬보 부인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자 가장 보고 싶은 인물이었다.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인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경이 너무나 커서 콜롬보 부인에 관한 시리즈가 실제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튼 이러한 그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진까지 보여주는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여 시청자를 속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자의 기대와 계임을 한 것이다. 시청자의 기대는 연출가와 작가에게 있어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왜냐하면 콜롬보는 항상 자신의 부인에 대해 말을 해왔고 시청자들은 그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했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가 끝난 후 시청자들은 ‘아차 속았다!’ 하면서도 동시에 작가와 연출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그 성공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기분 나쁜 실망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 실망은 연출가와 작가가 의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결과이며 결국 시청자들은 이러한 실망 자체가 재미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 재미는 콜롬보를 즐겨 시청한 경험이 많은 시청자의 것이다. 처음으로 콜롬보를 보는 시청자는 콜롬보가 범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과정에 더 많은 재미를 느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반복의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복은 수용자의 경험을 구성하고 이 경험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수용자의 기대는 연출가와 작가에게 혁신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대는 독특한 기능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시리즈를 예로 든다면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는 끊임없이 예측을 한다. 물론 이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 단지 시청자는 시청과정에서 끊임없이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달라진다. 특히 드라마에서 수용자의 기대의 전복은 매우 효과적으로 재미와 감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시간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이 연구는 시간의식이 무엇이며 이것이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간의식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이론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독립된 현실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록 단순화된 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기대를 오히려 시간의식의 작동방식을 더 잘 보여주는 개념적 도구로 보았다. 경험과 기대는 특히 시간의식을 심리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경험과 기대의 상호의미작용 속에 형성된 시간의식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TV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의식의 역할은 TV의 매체적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뉴스와 드라마라는 두 장르에서 분석되었다. 뉴스와 드라마는 서로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시청자들의 시간의식, 특히 기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달려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뉴스 정보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적 전달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써 흥미, 새로움, 놀라움 등을 담기 위해 시청자의 경험에 의해 발생한 기대를 활용한다. 픽션의 재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 정보의 경우 사건의 내재적 특성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픽션의 경우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의 기대와 게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날마다 새로움과 혁신성을 포장한 많은 TV 프로그램의 생산과 소비는 결국 수용자의 경험과 기대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시간의식에 대한 이론은 크게 구성주의 시간이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성주의적 시간이론을 논증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하나의 방대한 양의 논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구성주의를 거치면 어떠한 시간이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보여주기 위해 시간의식의 사회적 확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시간의식이 상징적 시간도구를 통해 사회적 시간의식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사회의 시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TV의 시간편성과 접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식의 또 다른 사회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관이 오늘날 다양한 TV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의식은 인간이 세상의 여러 현상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작용하는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이것을 경험과 기대라는 개념을 통해 TV 커뮤니케이션의 한 특성을 살펴본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은 구성주의적 시간이론의 적용범위는 TV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다는 것이며 TV 커뮤니케

이론에 대한 이해 역시 이 시간이론이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인간의 시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의 교집합 일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그 연구과제의 범위를 감안할 때 아직 긴 지적 여정에서 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여정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ttali, J. (1982). *Histoires du temps*. Paris: Fayard.
- Bachelard, G. (1992). *L'intuition de l'instant*. Paris: Stock.
- Barreau, H. (1990). *L'épistémologie*. Paris: PUF.
- Barthes, R. (1964). Structure du fait divers, in *Essais critiques*. (pp. 194~204). Paris: Seuil.
- Berger, P., Luckmann T. (1966/1996). *La construction sociale de la réalité*. Paris: Armand Colin.
- Bergson, H. (1968). *Durée et simultanéité*. Paris: PUF.
- Bougnoux, D. (2001). *Introduction aux sciences de la communication*. Paris: La Découverte.
- Bourg, D. (1997). *Nature et technique: essai sur l'idée de progrès*, Paris: Hatier.
- Eco, U. (1985). *Lector in fabula*. Paris: Grasset.
- _____ (1994). Innovation et répétition: entre esthétique moderne et post-moderne. *Réseaux*, 68, 9~26.
- Eliade, M. (1963/1988). *Aspects du mythe*. Paris: Gallimard.
- _____ (1969/1989). *Le mythe de l'éternel retour*. Paris: Gallimard.
- Elias, N. (1984/1997). *Du temps*. Paris: Fayard.
- Fraisse, P. (1957). *Psychologie du temps*. Paris: PUF.
- Koselleck, R. (1979/1990). *Le futur passé: contribution à la sémantique des temps historiques*. Paris: E.H.E.S.S.
- Le Moigne, J.-L. (1995). *Les épistémologies constructivistes*. Paris: PUF.

- Leroi-Gourhan, A. (1965). *Le geste et la parole II: la mémoire et les rythmes*. Paris: Albin Michel.
- Matricon, J., Roumette, J. (1991). *L'invention du temps*. Paris: Presses Pocket.
- Merleau-Ponty, M.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 Morin, E. (1991). *La méthode 4. Les idées: leur habitat, leur vie, leurs mœurs, leur organisation*. Paris: Seuil.
- _____ (2005). *L'introduction à la pensée complexe*. Paris: Seuil.
- Nietzsche, F. (1874/1998). *Seconde considération intempestive de l'utilité et de l'inconvénient des études historiques pour la vie*. Paris: GF Flammarion.
- Piaget, J. (1967). *La construction du réel chez l'enfant*. Neuchâtel (Suisse): Delachaux et Niestlé.
- _____ (1981). *Le développement de la notion de temps chez l'enfa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Reboul, A., Moeschler, J. (1998). *La Pragmatique aujourd'hui*. Paris: Seuil.
- Ricoeur, P. (1983). *Temps et récit, T.1: L'intrigue et le récit historique*. Paris: Seuil.
- _____ (1985). *Temps et récit, T.3: Le temps raconté*. Paris: Seuil.
- _____ (1991). Événement et sens, in *L'Espace et le temps*. Paris: Librairie J. VRIN.
- Torres, S. (2004). *Les temps recomposés du film de science-fiction*. Paris: Harmattan.
- Von Glasersfeld E. (1981/1988). Introduction à un constructivisme radical, in P. Watzlawick (Eds.). *L'invention de la réalité: contributions au constructivisme* (pp. 19~43). Paris: Seuil.
- Von Wright, G. H. (2000). *Le mythe du progrès*. Paris: L'Arche.

(투고일자: 2009.02.27, 수정일자: 2009.04.08, 게재확정일자: 2009.04.20)

The Role of the Consciousness of Time in the TV Communication

Won Lee

Senior Researcher

(MBC)

This paper aims at advancing the understanding of human communication by reflecting the role of the consciousness of time in television communication. A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not independent realities, but co-exist in the human consciousness, the ‘experience’ and the ‘expectation’ are used as two essential conceptual tools which explain the mechanism of oper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ime. The man anticipates the future based on the experience updated in the present, and chooses a present action and feels an emotion according to the expectation. The consciousness of time is extended to the symbolic instrument of time and the dominant vision of the world in the process of the socialization. The role of the consciousness of time in television communication is analyzed in both genres of information and fiction based on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elevision. The information and the fiction genres oppose to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s to the reality, but it turned out that their effects of communication such as enjoyment and novelty depends in common on the way of using the televiewer’s consciousness of time.

Key words: consciousness of time, TV communication, constructivism, expectation, information, fiction